

嶺·湖南 大學生の 相互間 差異知覺 研究

金 鎮 國
全南大學校 心理學科

영·호남 지역 대학생들이 영남사람과 호남사람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전남대학생 132명과 대구대학생 158명에게 응답지를 주고 외집단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를 자유롭게 기술토록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 되었다. 주요 분석 내용은 반응(기술)량, 표현양식, 역사적 배경, 내-외상동형, 직접경험, 간접경험이었다. 분석 결과 나타난 차이를 보면 평균 반응량은 호남표본이 더 많았으나 비단정적인 표현 방식의 사용은 영남표본이 더 많았다. 자발적으로 언급된 역사적 배경이나 시기에서 호남표본은 과거, 특히 삼국시대로부터 고려 초까지를 많이 언급한 반면 영남표본은 최근을 많이 언급하였다. 호남표본의 내-외상동형은 양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그 의미도 비교적 중립적이었다. 반면 영남표본의 외상동형은 양적으로 매우 풍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히 오의적이었다. 두 집단 성원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상동형적 신념을 확인시켜 주는 부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남표본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간접경험한 두 집단간의 차이는 내-외상동형에서의 반응과 유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영남표본은 호남사람의 개인적 특성에 주목하였으나 호남표본은 차별적인 사회현상에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영남표본이 호남표본보다 훨씬 더 강한 편견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 사회의 몇몇 지역간에는 편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하여는 이것이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만 할 사회병리적 현상이라는 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편견의 감소 및 해소를 위한 사회전반의 노력은 극히 미미할 따름이며 시행된 또는 진행중인 노력의 성과도 의심스럽다. 동시에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문제의 중요성 및 심각성에 견주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편견은 개인이 갖고 있는 가장 파괴적인 태도의 일종으로 오랫동안 사회심

리학의 핵심적 연구주제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특히 미국의 경우). 그 이유는 첫째, 편견의 존재양식, 지속성 등 여러가지 특성이 학문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학술적 이유 때문이고, 둘째로는 편견에 대한 연구가 편견형성의 이유를 밝혀 주는 것은 물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므로써 사회발전 및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실용적 이유 때문이다. 편견연구가 학술적으로나 실용적 측면에서 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으며 현재도 거의 금기시 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지역감정 같은 것은 골치 아프니까 덮어 두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그릇된 통념이 사회전체에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통념은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문제발생시에는 미봉책으로 대응하려는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문제발생의 잠재력만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은 자명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된 것으로 영·호남지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의 차이점을 다루고자 하였다.¹⁾ 먼저 영남과 호남을 택한 것은 한국인의 지역민간의 편견적 태도는 영·호남의 두 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다. 즉, 이 두 집단이 가장 대립적이고 갈등적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호남 사람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지각(perception)을 다룬 것은 이것이 편견적 태도의 형성과 표현에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편견적 태도가 형성되기 위하여는 먼저 어떤 특성(인종, 국가, 민족, 언어, 종교, 문화, 사회, 계층, 지역 등)상으로 구별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집단이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Brigham, 1971; Harding, Kutner, Proshansky & Chein, 1969; Tajfel, 1981). 집단이 형성되면 개인이 다양한 사람들을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으로 구분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인지적 반응이며, 개인은 현세계에 대한 적응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인의 지각세계의 질서와 단순성과 조화를 추구해 나가게 된다(Ashmore, 1981; Brewer, 1979; Hamilton, 1979, 1985 등). 즉 개인은 나름대로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심상(image)을 구축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집단간의 차이를 함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우리는 근면·성실하다'고 지각한다면 외집단에는 그러한 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하며, '그들은

1) 본 연구는 본래 지역민간의 편견적 태도의 측정 도구를 만들기 위한 연구의 예비연구로 수행되었으나, 별도로 보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별개의 논문으로 작성된 것임.

이기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모든 심상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내·외집단에 대해 형성한 심상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집단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개인의 지각은 그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 행동은 다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상호작용의 전 국면을 바꿔놓게 된다(Rose, 1981; Snyder, 1981; Wilder, 1981).

현 한국사회에서도 중요한 것은 영·호남인이 상대방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이다.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은 확인하기 극히 어려운 문제일 뿐 아니라(김진국, 1984 b; Brigham, 1971), 그리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동을 좌우하고 집단간 상호작용 상황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양 집단사람들의 실체가 아니라 상호간의 지각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는 영·호남인 상호간의 차이점 지각을 연구 문제로 삼았다.

方 法

응답자 전남대학생 132명, 대구대학생 164명이 응답자였으나 응답이 극히 부실하거나 스스로 각도 출신이 아니라고 밝힌 것 각각 1사례, 6사례를 제외한 바 전남대학생 131명 대구대학생 158명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 심리학 개론 수강생이었으며 자료수집은 1985년 2학기중 정규 수업시간에 이루어졌다.

재료 및 절차 응답자들에게 응답용지를 제시하고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응답자 스스로 기술토록 했다. 전남대학교 응답자들에게 준 지시는 다음과 같다(경상도 응답자는 지시문 중 '경상도'와 '전라도'가 뒤바뀐 점 이외에는 동일한 지시를 받았음).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민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갈등의 중심은 영·호남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법에 대한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로 여러분이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느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기초는 다른 집단의 사람은 우리와는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여러분이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상도 사람 전체가 빚어낸 사회적 현상이든, 아니면 그들 개개인의 행동이나 성격 등 무엇이든지 좋으니 느끼시는 대로 적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느끼시는 대로 적어 주십시오.

사용된 응답지(16 절지)의 맨위 중앙부분에는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과 다른 점”(전라도 응답자에게는 이와 반대로 되어 있음)이라는 제목이 적혀있고 그 밑의 원편에는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문화적인 면’, ‘기타 특기사항’이 소제목으로 적혀 있다. 각 소제목 옆에는 응답을 적기 위한 여백이 있으며 각 여백에는 네개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기타 특기사항만은 5 개). 그 밑에는 응답자의 학과, 학번, 성명을 적도록 되어 있다.

분석 본 연구의 응답지로 수집된 자료는 여러 측면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하위영역별로의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응답지 전체가 갖고 있는 공통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 분석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하위영역에 주목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의미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고 후자의 분석방법을 택했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주요 내용은 첫째, 양 지역민이 서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각하는가. 둘째, 지역민간의 직접적인 상호접촉의 맥락·내용·결과는 무엇인가. 셋째, 타인을 통해 들은 바 있는 간접경험의 내용은 무엇인가이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료전체가 갖는 특징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반응량 및 표현양식 등 자료 전체를 조망하고 세부적 내용해석에 틀이 될 내용을 정리·분석하기로 하였다.

내용분석의 세부적인 절차는 결과중 해당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본 연구의 특징적인 면인 동시에 모든 분석내용에 공통적인 것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내용분석 결과를 타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면서 분석에 임했다. 일반적인 내용분석 과정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분석내용이 분류될 항목이나 분류체계내에 나와 있으면 빈도를 추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분석은 이에 더하여 응답지 및 분류항목에 일련번호를 매겨놓고, 분석시에는 응답지 내용 중 분류된 내용에는 분류항목의 번호를 적고, 해당 분류항목에는 응답지 번호를 적었다. 이 방법은 분석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응답지와 분류항목의 확인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응답자의 기술내용 그 자체에만 주목했다. 즉 응답자의 구체적인 기술내용에 충실하였으며 주관적인 추론이나 부가적 해석을 철저히 배제하였다.

셋째, 모든 분석은 연구자 혼자서 하였다. 여러명의 분석자를 사용하면 편향(bias)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석상의 일관성 유지, 주관적 해석 및 추론 배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²⁾ 따라서 내용분석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가 개입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

結果 및 論議

본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은 크게 세 범주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반응량 및 표현양식이다. 이의 분석결과는 분석된 응답지들이 어떠한 양식으로 얼마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게 해 줄 것이다. 둘째는 내·외집단에 부여하는 常同型들(stereotypes)이다. 이 분석결과는 두 응답자 집단들이 자기자신의 소속집단과 외집단을 어떠한 특성기술훈개념들로 묘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게 해 준다. 셋째는 두 집단간의 상호작용을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두 집단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상호작용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를 다루었다.

I. 반응량 및 표현양식

1. 반응량

방법 사용된 응답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치·경제·사회·문화·기타 특기사항의 5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반응량의 측정은 각 항목별로 응답에 사용된 밑줄의 수를 기준으로 했다. 즉 응답자가 5개항 각각에 응답하기 위해서 사용한 줄(行)의 수를 세었는데 단 한 자라도 적혀 있으면 절상하여 한 줄로 계산했다. 밑줄을 초과하여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했으며, 응답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모르겠다”라고만 응답되어 있어도 한 줄로 계산했다.

결과 각 항목별 평균응답량을 구하고 비교하였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전라도 응답자($M=3.59$)가 경상도 응답자($M=2.99$)보다 유의하게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t(286)=5.325; p<.001$). ‘경제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에서도 전라도 응답자들의 평균반응량($M_s=3.60, 3.27$)은 경상도 응답자의 평균($M_s=2.82, 2.72$)보다 유의하게 많았다($t_s(286)=6.923, 4.882; p_s<.001$). 반면 ‘사회적인 면’(전라도; $M=2.95$, 경상도; $M=2.99$)과 ‘기타 특기사항’(전라도; $M=2.83$, 경상도; $M=2.77$)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이러한 판단은 실제의 수행을 근거로 한 것임. 최초의 분석은 4명(연구자와 3명의 대학원생)이 하였으나 문제점이 많아 연구자 혼자서 전체를 다시 하였음.

이 결과의 종합적인 이해를 위하여 뒤의 요인이 반복측정인 2(응답자집단) \times 5(정치·경제 등 5개 항목) 분할구획요인설계 분석을 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전항목에서의 평균 반응량을 보면 전라도 응답자($M=3.25$)가 경상도 응답자($M=2.86$)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F(1,287)=11.837, p<.001$), 항목 간에도 유의한 차이($F(4,1148)=5.854, p<.001$)가 있었다. 또한 집단과 항목 사이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게($F(4,1148)=4.911, p<.001$)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전라도 응답자가 두 집단간의 차이에 대해서 보고할 내용이 많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결과는 앞으로 제시될 내용, 즉 내·외 귀속특성 등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상호작용의 경험의 정도에 있어서도 전라도 응답자들이 풍부한 내용을 보고할 것임을 예견케 한다.

2. 비단정적 표현의 사용

방법 반응량외에 내용분석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진술방식이다(Holsti, 1969). 즉 얼마나 많이 반응했는가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반응했는가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는 진술방식의 화용적(話用的) 일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진술양식은 추측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표적인 단어로는 '...같다'를 들 수 있다. '같다'의 사전적 정의중 하나는 '...로 짐작된다는 추측의 뜻을 나타냄'³⁾이다. 본 분석에서는 각 응답자들이 '같다'를 사용한 횟수를 세었다. '...인듯 싶다', '...아닐런지',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등도 동일한 표현양식으로 포함시켰으나 거의 전부가 '같다'이다.

결과 각 항목별 비단정적 표현의 사용량을 개별 비교한 바 정치·경제·사회·기타의 네 항목에서의 경상도 응답자의 평균($M_s=.671, .456, .544, .386$)은 각각에 대한 전라도 응답자의 평균($M_s=.489, .321, .374, .282$)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t_s(287)=3.434, 2.547, 3.208, 1.962$; $p_s<.001, .01, .01, .05$). '문화적인 면'에서는 두 집단의 평균들($M_s=.481, .443$)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t(287)=.736, p>.05$).

반응량에 대한 분석과 동일한 방식(2×5 SPF 설계)으로 이루어진 변량분석 결과는 경상도 응답자의 항목당 비단정적 표현 사용량($M=.508$)이 전라도 응답자의 사용량($M=.382$)보다 유의하게 많음($F(1,287)=5.595, p<.05$)을 보여주며, 항목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F(4,1148)=5.378, p<.001$).

3) 신기철, 신용철 (1985). 「새 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두 집단간의 차이를 기술하게 하는 과제에서 ‘같다’와 같은 비단정적인 추측을 반영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전체적인 반응량은 오히려 적은 경상도 응답자들에게서 이런 표현양식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더욱 관심을 끈다. 이 결과들은 전라도 응답자들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언급한 반면 경상도 응답자들의 응답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견해를 많이 보고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 준다.

지역간의 차이를 기술하는 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견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편견자체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신념·지식·가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시사적이다. 즉 경상도 응답자들이 전라도 응답자보다 더 편견적 태도를 갖고 자료수집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며, 이는 다시 경상도 응답자들이 더 강한 편견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 준다.

3. 역사적 배경

개관 응답내용 중에 언급된 역사적 시기·사건·인물·기록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목적은 응답자들이 영·호남간의 차이점 지각과 관련하여 연상하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분석결과는 응답자들이 지각하는 차이의 근원 및 시대적 배경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응답자들에게 역사적 배경을 언급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 나타난 역사적 배경들은 모두 자발적인 진술이다. 따라서 이를 별도로 연구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사뭇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하나의 유의점은 수집된 내용의 대부분이 ‘정치적인 면’ 응답란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주된 이유는 응답지 자체가 정치적인 차이로부터 기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를 정치적인 쪽으로 편중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특징은 본 결과의 제한점인 동시에 다른 연구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응답자들의 반응이 인위적이거나 강제적이 아니고 자연적이고 자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왜곡 또는 편향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대개의 편견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형성되며(Brewer & Campbell, 1976), 한국의 지역적 편견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이다(김진국, 1984 a).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편견과 관련지어 연상되는

시기·인물·역사적 상황은 무엇인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자료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결과 및 논의 응답자의 진술로부터 얻은 역사적 시기·사건·인물을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다시 이를 시대별로 묶은 결과가 <표 1>로 제시되어 있다. 시대별 분류는 연구자 임의로 한 것이므로 표를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표 1> 언급된 역사적 시기·사건·인물

시 기	내 용	경상도 응답자		전라도 응답자	
		n (%)		n (%)	
불특정과거		29 (41.4)		37 (37.4)	
	옛부터*	29 (41.4)		37 (37.4)	
고려이전		8 (11.4)		22 (22.2)	
	부족국가	1 (1.4)			
	삼국시대(신라, 백제)	7 (10.0)		12 (12.1)	
	삼국통일	-		3 (3.0)	
	통일신라	-		3 (3.0)	
	후백제(견훤)	-		4 (4.0)	
고려시대		4 (5.7)		25 (25.3)	
	왕 건	3		8 (8.1)	
	훈요십조	1 (1.4)		6 (6.1)	
	고 려	-		11 (11.1)	
조선시대		9 (12.9)		8 (8.1)	
	조선시대	5 (7.1)		4 (4.0)	
	귀양지·유배지	3 (4.3)		4 (4.0)	
	동 학	1 (1.4)		-	
일제시대		1 (1.4)		1 (1.0)	
	일제시대	1 (1.4)		-	
	의병·학생운동	-		1 (1.0)	
해방-건국		1 (1.4)		3 (3.0)	
	해방후	-		3 (3.0)	
	여순반란	1 (1.4)		-	
제3공화국 이후-현재		18 (25.7)		3 (3.0)	
	60년대 초반	-		1 (1.0)	
	박정희 대통령	4 (5.7)		1 (1.0)	
	김 대 중	4 (5.7)		-	
	광주사태	8 (11.4)		-	
	전두환 대통령	1 (1.4)		1 (1.0)	
	김 상 협	1 (1.4)		-	
합 계		70 (100.0)		99 (100.0)	

* 역사적으로, 고대로, 전부터 등이 포함된 것임.

전라도 응답자의 총 반응수(99)는 경상도 응답자의 반응수(70)의 1.4 배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수(경상도 158 명, 전라도 131 명)를 고려해 주면 실제로는 1.7 배에 달한다. 이 결과는 전라도 응답자들이 경상도 응답자들 보다 현상황의 원인을 과거에 두고, 과거를 중심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개별 시기·사건·인물을 중심으로 보면 두 집단 공히 ‘옛부터’라는 불특정 과거를 지적하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이는 구체적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응답자 중 상당수가 지역간의 차이가 매우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옛부터’라는 불특정과거를 제외하고 보면 전라도 응답자는 고려 및 그 이전의 시기를 많이 언급한 반면, 경상도 응답자는 1960년대 이후를 많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라도 응답자는 ‘고려이전’과 ‘고려시대’가 각각 22.2%와 25.3%이며 이를 합하면 전체의 1/2에 이른다. 여기에 불특정과거인 ‘옛부터’ 언급율을 합한다면 반응의 거의 대부분(85%)이 이 범주에 속한다. 반면 경상도 응답자는 1960년대 이후를 언급한 것이 25.7%로 전라도 응답자의 3.0%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언급 시기에서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개별적인 내용에서의 차이를 수반하게 되어 있다. 이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 몇 개만을 시대순으로 간추려 보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통일신라의 형성과 붕괴에 대한 언급이다. 전라도 응답자의 10%가 이를 언급한 데 반하여 경상도 응답자 중에는 한 사례도 없다. 또한 고려시대(왕건, 훈요십조, 고려)의 언급율도 전라도 응답자가 25.7%인데 반해 경상도 응답자는 5.7%에 불과하다. 이상의 결과는 전라도 응답자들이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과 통일신라의 붕괴과정, 그리고 고려의 전국과정에 주목하고 이 시기를 현재의 영·호남간의 차이의 근원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 준다.

반면 경상도 응답자의 반응 중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광주사태(11.4%)와 김대중(5.7%)의 언급이다. 이 둘은 경상도 응답자의 전체 언급의 17.1%를 차지하나 전라도 응답자 중에서는 단 하나도 없다. 광주사태와 관련지어 소수이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여순반란·동학란의 언급인데 이 역시 전라도 응답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다. 두 집단간의 이러한 차이는 경상도 응답자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체제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또 행동을 하는 집단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II. 내·외집단에 부여하는 상동형들

개관 편견적 태도의 중요 요소 중 하나는 常同型(stereotype: 고정관념 또는 선입견이라고도 함)이다. 상동형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특성으로 집단간의 태도, 지각, 갈등 등에 관한 경험적 연구나 이론 구성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어온 개념이다(Brigham, 1971).

본 장에서는 경상도 및 전라도 응답자들이 자기집단의 특성은 무엇이고, 상대집단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지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응답지 전체에 나타난 특성기술개념(형용사 또는 句)들을 확인하고 기술대상 집단별로 그 수를 세었다. 특성기술개념의 분류에서도 응답자의 진술 자체에 충실하고 추론은 최대한으로 억제했다. 따라서 그 의미에서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임의로 한 유목으로 합치지 않았다. 예를들면 ‘화끈하다’, ‘화통하다’, ‘호탕하다’를 각각 하나의 분류유목으로 하였다.

1. 전체적인 특성귀속 경향

먼저 분석결과의 전체적 요약물 제시하고 난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전체적인 요약 결과는 <표 2>와 같다.

응답자 집단*	경 상 도		전 라 도**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	전라도
특성귀속 대상집단				
사용된 개념수	54	101	81 (97.7)	69 (83.2)
총 반응수	98	293	119(143.5)	99(119.4)
개념당 평균 반응수	1.82	2.90	1.47	1.43
응답자당 평균 반응수	.620	1.854	.908	.756
3회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특성수	12	33	7 (8.4)	6 (7.2)

* 경상도 응답자 : 158 명, 전라도 응답자 : 131 명

** 괄호안의 수치는 응답자 비율을 고려하여 원자료에 1.206(158/131)을 곱한 것임.

특성기술에 사용된 개념의 수(종류)는 경상도 응답자의 전라도 사람에 대한 것이 가장 많고(101개), 이들의 내집단에 대한 것이 가장 적다(54개). 반면 전라도 응답자의 사용개념수는 이들의 사이에 있다.

두 집단 모두에서 외집단의 기술에 사용된 개념이 많았는데 주된 이유는 지시문 및 응답지에서 외집단이 내집단과 어떻게 다른가를 기술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상도 응답자는 외집단의 특성기술에 사용한 개념의 수가 내집단의 두배에 이른다. 이는 경상도 응답자들이 전라도 응답자들에 비하여 내집단은 동질적으로, 외집단은 더욱 이질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Taylor, Fiske, Etcoff & Ruderman (1978)은 개인이 대상을 내집단-외집단으로 범주화 하게 되면, 집단내의 차이점은 극소화 하는 반면 내-외집단간의 차이는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경상도 응답자들이 내-외집단의 범주화 기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각 특성기술개념이 사용된 빈도를 합친 것이 총반응수이다. 총반응수는 경상도 응답자의 전라도 사람에 대한 것이 293 회로 가장 많다. 이는 경상도 응답자의 내집단에 대한 반응수(98)의 3 배이다. 반면 전라도 응답자의 외집단에 대한 총반응수(119)는 내집단에 대한 반응수(99)의 1.2 배에 불과하다.

개념당 평균반응수의 면에서는 경상도 응답자의 전라도 사람에 대한 것이 평균 2.90으로 그 어느 경우보다 많으며, 이는 전라도 응답자의 내·외집단에 대한 것(각각 $M=1.43, 1.47$)의 2 배에 해당된다. 이 결과는 경상도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전라도 사람에 대한 사회상동형이 다수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응답자수를 고려하여 즉 응답자당 평균반응수를 보아도 경상도 응답자의 전라도 사람에 대한 반응은 평균 1.854 개로 전라도 응답자의 내집단 ($M=.756$) 및 외집단($M=.908$)에 대한 것의 합계(평균 1.664) 보다도 많다. 이 결과는 경상도 응답자들이 전라도 사람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회상동형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상동형적 신념도 풍부함을 암시해 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경상도 응답자의 전라도 사람에 대한 특성기술개념의 사용은 다른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개념들을 빈번히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는 경상도 응답자들이 최소한 인지적 측면에서 더욱 강한 편견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각 집단의 내상동형과 외상동형

한 집단의 사람들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특성을 사회상동형(social stereotype)이라 하며 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김진국, 1984 b). 그러나 본 연구는 원래 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방법의 개념적 틀에 들어맞는 자료 처리가 불가능

하다. 따라서 특성기술개념의 출현빈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상동형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방법은 상당한 제한점이 있으나 적절한 대안이 없고 본 연구 자체가 집단간 관계의 전체를 조망해 보기 위한 탐색적 시도라는 점에서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방법상의 제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결과해석에 임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 집단이 보고한 특성들 중에서 어떤 특성이 사회상동형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는 출현빈도가 3회 이상인가 미만인가를 기준으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각 집단의 내상동형과 외상동형의 수는 경상도 응답자는 각각 12개, 33개이며, 전라도 응답자는 각각 6개, 7개이다(표 2 참조). 즉 경상도 응답자의 내상동형의 수는 전라도 응답자의 2배이며, 외상동형의 수는 5배에 달한다. 이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념당 평균 반응수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내-외상동형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귀속된 특성기술 개념과 그 출현빈도를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먼저 경상도 응답자의 내상동형들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에서 기대되는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들이 그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들면 ‘무뚝뚝하다’, ‘화통하다’, ‘의리강하다’, ‘인정있다’, ‘호탕하다’, ‘개방적이다’, ‘포용력있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단결력이 약하다’이다. ‘단결력’은 집단간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념(김진국, 1984 a)이므로 뒤에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경상도 응답자의 외상동형, 즉 전라도 사람에 대한 상동형은 양적으로 풍부(33개)할 뿐만 아니라 공유도(출현빈도)가 높고 또 극히 부정(negative)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공유도라는 측면에서는 10회 이상의 출현빈도를 보인 개념이 경상도 응답자의 내상동형이나, 전라도 응답자의 내-외상동형 중에는 단 하나도 없는 데 반해 5개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기적이다(24회)’, ‘단결력이 강하다(20회)’, ‘뒤끝이 나쁘다(17회)’ 등의 개념은 많은 출현빈도로 미루어 경상도 응답자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상동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도 응답자가 나타낸 33개의 외상동형 중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들끼리 묶어 몇 개의 차원으로 정리하면(이는 순수히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불신’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불신’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개념은 ‘뒤끝이 나쁘다(17)’,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

* 국어사전(신기철·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사전(3판), 삼성출판사; 1985)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다. 그 용법 및 사용 맥락으로 미루어 “호탕하다”가 변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 집 단	경 상 도		전 라 도		
	내상동형	외상동형	내상동형	외상동형	
내 용 (출현 빈도수)	무뚝뚝하다(6)	이기적이다(24)	개인주의적	인정이 많다(6)	단결력이
	화통하다 (6)	단결력이	이다 (4)	단결력이	강하다(9)
	의리강하다(5)	강하다(20)	가볍다 (4)	약하다(5)	이기적이다(4)
	인정있다 (5)	뒤끝이나쁘다	인간성이	정의감이	타산적이다(4)
	정이 많다 (4)	(17)	나쁘다(4)	강하다(4)	진취적이다(4)
	호탕하다 (4)	수단방법	의리없다 (4)	반항적이다(3)	개인주의적
	보수적이다(4)	안가리다(13)	친절하다 (4)	소극적이다(3)	이다 (3)
	개방적이다(3)	인색하다 (10)	배타적이다(9)	투박하다 (3)	검소하다 (3)
	털털하다 (3)	깨끗하다 (3)	생활력이		자긍심이
	단결력이	고집세다 (3)	강하다(8)		있다 (3)
	약하다(3)	약삭빠르다(8)	근면하다 (3)		
	억세다 (3)	사교적이다(7)	교활하다 (3)		
	포용력있다(3)	기회주의적	꼼꼼하다 (3)		
		이다 (6)	표리부동		
		보수적이다(3)	하다 (6)		
		계산적이다(6)	성실하다 (3)		
		악착같다 (6)	집단력이		
	일본인과	강하다(3)			
	비슷하다(6)	타산적이다(3)			
	결과속이	포용력이			
	다르다(5)	부족하다(3)			
	간사하다 (5)	속인다 (3)			
	협동심이				
	강하다(5)				

는다(13); ‘약삭빠르다(8)’, ‘기회주의적이다(6)’, ‘표리부동하다(6)’, ‘결과 속이 다르다(5)’, ‘간사하다(5)’, ‘의리없다(4)’, ‘교활하다(3)’, ‘속인다(3)’의 10개이다.

두번째는 ‘이기성’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기적이다(24)’, ‘인색하다(10)’, ‘계산적이다(6)’, ‘개인주의적이다(4)’, ‘깨끗하다(3)’, ‘타산적이다(3)’의 6개 개념이 속한다. 이는 표에 제시된 개념들의 사전적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응답이 이루어진 맥락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생활력이 강하다’, ‘악착같다’, ‘꼼꼼하다’, ‘성실하다’ 등의 상당수가 ‘이기성’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포함시키지 않았다.

세번째는 ‘단결력’ 차원인 바, 여기에는 ‘단결력이 강하다(20)’, ‘배타적

이다(9)', '협동심이 강하다(5)', '집단력이 강하다(3)'의 4개 개념이 속한다.

이상의 결과 즉, 경상도 응답자들이 전라도 사람은 일차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지각하고, 동시에 전라도 사람은 이기적이며 단결력이 강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한 집단이 어떤 대상 집단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상동형과 그 집단에 대한 호오태도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Brigham, 1971; Stephan, 1985). 따라서 대상집단에 대한 상동형들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그 집단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도 응답자가 보인 상동형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의 전라도 사람에 대한 태도는 감정차원(affective dimension)상으로 극히 오의적일 것임을 암시한다. 둘째, 개인의 지각세계는 현실세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개인이 지각하는 바에 따라 개인의 행동은 크게 변할 수 있으며, 개인의 행동은 현실세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변화된 현실은 다시 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준다(Stephan, 1985). 경상도 응답자의 전라도 사람에 대한 지각의 중심주제를 요약하면 '전라도 사람은 단결력이 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도 응답자들의 이러한 견해는 이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장면에서 전라도 사람에 대해 차별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다분함을 암시한다. 이는 대인행동의도(interpersonal behavioral intention)를 분석한 바 불신을 바탕으로 한 전라도 사람에 대한 접촉회피가 한국적 사회거리감의 대표적 일면이라고 한 김진국(1984 a)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전라도 응답자의 내상동형은 '인정이 많다' 등의 6개이다. 이 내상동형들을 경상도의 내상동형과 비교하면 먼저 수적으로 1/2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 즉 호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개념은 6개중 2개('인정이 많다', '정의감이 강하다')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호의적인 특성은 내집단에 귀속시키고, 오의적인 특성은 외집단에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고전적인 연구결과들(예를들면, Katz & Braly, 1933; Vinacke, 1949)과 상치된다.

전라도 응답자의 외상동형은 7개로 수적인 면에서 경상도 응답자의 외상동형의 1/5에 불과하며, 그 중심적 내용은 '이기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인 함축적 의미는 그리 비호의적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전술한 전라도 응답자의 내상동형의 미약한 비호의성과 외상동형의 호의성은 일견 이와의 결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Hewstone & Ward(1985)는 이러한 경향을 지위가 낮고 억압받는 집단이 나타내는 전형적인 반응양식일 수 있다고 한다.

두 집단의 상동형으로 나타난 개념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단결력’이다. 단결력이 강하든 약하든 간에 이는 두 집단의 내-외상동형 모두로 나타난 유일한 개념이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외상동형으로는 ‘단결력이 강하다’가 사용되었으며 내상동형으로는 ‘단결력이 약하다’가 사용되었다. 출현빈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경상도 응답자의 내상동형을 제외하고는 가장 또는 두번째로 많이 표현된 상동형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단결력이란 개념은 집단간 경쟁상황 및 위협이라는 조건과 곧바로 연결된다. 즉 집단내 단결력은 위협을 지각하거나 다른 집단과 경쟁하게 될 때 중요하게 되고 증가하게 된다(Turner, 1981). 경상·전라 두 집단이 서로 외집단은 단결력이 강한 반면 내집단의 단결력은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두 집단이 서로 위협적이고 경쟁적 관계라고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간의 경쟁이나 위협은 때로 순기능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짙은 불신이나 강한 적대감이 깔려 있다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거나 건설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Ⅲ. 편견과 직접·간접경험

개관 경험은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여기서 직접경험이란 개인이 다른 매개물을 거치지 않고 상호작용의 대상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고, 간접경험이란 다른 매개물을 통해서 상호작용의 대상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직접경험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대상 집단의 구성원이나 현상, 즉 전라도 사람의 경우라면 경상도 사람이나 경상도의 실태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간접경험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상 집단이나 대상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응답자들의 직접경험 및 간접경험에 대한 진술들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직접경험의 내용으로는 대상집단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물론 묵시적으로 암시한 것도 포함시켰다. 여기서 구체적인 표현의 예를 들면 “수학여행가서...”, “지리산에 가서...” 등과 같은 표현이다. 반면 묵시적으로 상호작용을 암시한 것은 “몇몇 전라도 사람을 보면...”, “내가 겪은 바로는...” 등으로 상호작용의 맥락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직접경험임이 분명한 것들이다.

간접경험의 내용으로는 타인의 경험이나 말, 일반적인 평가 등이 포함된다. 즉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세상에... 말이 있다”, “...하더라” 등의 진술을 분석하였다.

1. 직접경험

직접경험의 양 외집단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나타내는 반응의 수 및 접촉이 이루어진 맥락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먼저 전체적인 반응수를 살펴보면 경

상호작용맥락	경상도 응답자	전라도 응답자*
여 행	10	6 (7.2)
학교 및 학교 관련 맥락	6	-
군 대	5	4 (4.8)
기 타	21	2 (2.4)
계	42	12(14.4)

* 괄호 안의 수치는 전라도 응답자수가 경상도 응답자수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빈도임.

상도 응답자의 보고량(42개)이 전라도 응답자의 보고량(12개)보다 훨씬 많다. 이는 전라도 응답자의 수가 적음을 고려해도 이들의 3배에 달한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는가에 대하여는 두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경상도 응답자가 전라도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더 많았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인구가동이러는 측면에서 전라도 사람의 경상도로의 이주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많음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단간의 접촉기회는 한정되어 있다(Kinder & Sears, 1981). 사회접촉이 일차적으로 유사한 사람과 이루어 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경상도 응답자인 대구대학생들이 전남 대학생보다 상대집단의 성원을 접촉할 기회가 3배의 보고를 할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는 사회심리학적 접근으로 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동기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서 경상도 응답자들이 전라도 응답자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동시에 훨씬 더 오의적인 상동형들을 갖고 있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인인상형성 과정에서 부적인 특성이 정적 특성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가지므로(Fiske, 1982), 적응적인 측면에서 부적 특성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경상도 사람은 대인상호작용 장면에서 부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즉 자신에게 어떤 위해를 끼칠지도 모른다고 느끼는 대상을 변별해 내도록 동기화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작으나 이러한 일에 능숙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상도 응답자의 특성이 더 많은 직접경험을 보고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인지적인 측면으로부터도 해석 가능하다. 상동형은 어떤 대상집단에 대한 예언(prediction) 또는 기대(expectation)라고 할 수 있다(Ashmore & Del-Boca, 1981; Deaux & Lewis, 1984). 이러한 예언 및 기대는 상호작용 상

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판단 및 기억에도 영향을 준다. 즉 상동형적 기대는 상호작용 장면에서 상대의 행동이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무시하고, 일치하는 행동은 주목하고 기억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일치하는 방향으로 왜곡시켜 재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지과정상의 특징은 기존의 기대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인지과정이 경상도 응답자들로 하여금 상동형과 일치하는 경험을 많이 했다고 판단하게 하고 또 보고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

방법론상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직접경험의 대부분은 다섯개의 응답란 중 ‘기타’에서 보고된 것이다. 즉 경상도 응답자들은 그들의 상동형적 신념에 따라 전라도 사람에 대한 부정적이고 오의적인 특성을 앞의 응답란에서 보고하고는 이를 정당화할 근거를 제시할 필요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당화는 직접경험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가장 잘 충족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설명 중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인가는 현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

경상도 응답자의 직접경험 직접경험에 대한 진술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미시적인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상호작용 상황을 조감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방법을 택했다. 단 상호작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들은 한데 묶었으며 상호작용의 결과가 바람직했던 것이 앞에 나오도록 배열했다. 이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상호작용 맥락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이루어진 것은 21개로 전체의 1/2이었으며 이중 여행이 10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학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6개)이고, 마지막으로 군대상황(5개)이었다. 나머지 21개는 상호작용 맥락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들은 별도의 <표 6>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행 맥락에서의 상호작용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판단된다. 10개 중 순수히 긍정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3때 가보니 선입관과는 별다른 점이 없었다’는 응답 하나에 불과하다. 학업관련 상호작용은 더욱 부정적이어서 보고된 6개 모두가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군대에서의 직접경험은 5개인데 이중 2개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구체적 상황제시가 없는 진술 21개(표 6)중 순수히 긍정적인 것은 2개에 불과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보고된 42개의 직접경험 중 긍정적 결과를 낸 것은 5개에 불과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태도변화를 시사하는 것, 즉 기대와 달랐다는 보고는 4개에 불과하다. 이 결과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응답자들이 보고한)이 편견감소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갖고 있는 편견을 강

맥락	내용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3때 가보니 선입관과 달리 별다른 점이 없었다. - 음식이 정결, 푸짐함을 보면 전라도 사람이 꼼꼼함을 알 수 있었다. - 전라도 말씨는 안 좋았으나 음식맛은 좋았다. * 바가지 요금에 심하고, 경상도 사람이라고 외면·팔시하고 불친절했다. * 바가지 요금이 심하고, 이해타산적이고, 잘난척하고, 쪼쪼했다. -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가보니 전라도 사람 미개인 같았다. - 광주에서 경상도라고 하자 무시했다. - 지리산 여행시 전라도와 다투었는데 말이 많았다. - 캠핑가서 전라도와 싸웠는데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했다. 보면 거리감이 생긴다. - 수학여행시 보니 대도시의 웅장함이 없었다.
학교 및 학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우중 전라도가 있는데 낭비 심하고, 체면·권위 위주로 돈을 써 소외받고 있다. - 고교때 전라도 선생이 있었는데 전라도라 놀리면 상상 이상으로 화를 냈다. - 미팅파트너가 전라도였는데 서로 말다툼만 했다. - 고교때 급우중 전라도가 있었는데 이기적이고 참견 잘 했다. * 전라도가 배반하고 뒤끝이 나쁜 것을 본적이 있는데 하숙집에서 도둑질했다. * 고교때 전라도 급우가 처음엔 친절하더니 나중에 돈베어 먹었다.
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도는 뒤끝 나쁘다고 들었으나 판관이었다. - 전라도는 강하고 자신의 일에 철두철미하다. 특히 군대에서는 경상도 전라도 차이 없다. * 전라도 사람은 처음에는 잘 하나, 속으로는 실속 차린다. - 전라도 민간단체가 입영한 적이 있는데 그들끼리는 동화 잘 되나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돈을 쓰지 않았다. - 해태가 야구에 지면 기합을 주는 등 악랄했다.

화시키는 기능을 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는 상호작용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분석대상이 된 진술의 앞에 *표한 것은 불신을 밀바탕으로 한 상호작용들, 또는 상호작용의 결과가 불신으로 이어진 것들이다. 이는 15개(표 5 ; 5개, 표 6 ; 10개)로 부정적 또는 중립적 결과를 보인 것들(37개)의 40%를 넘는다. 이 결과는 경상도 응답자가 전라도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상동형의 일차적 특

- 생각보다 훨씬 좋은 사람임.
- 말씨 딱딱하나 의외로 친절한 것 같았음.
- 친한 친구(전라도)인데 장점은 결단력·인내심임. 단점은 형이상학적, 냉철하고, 냉소적, 적대감 갖고 있음.
- 전라도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형식에 치우침, 생활은 근면했음.
- 정부를 불신하고 비판적, 반항적임.
- 염치없음.
- 인색하며 동료집단의식이 없음.
- 말이 듣기 싫어 한발짝 물러서서 이야기 하게 됨.
- 전라도에서 만든 소주 사겠다고 한나절 헤메는 사람 봤음.
- 대화시 어감에서 반발 생김.
- 술좌석에서 말 잘하고 술버릇이 나빴는 데 알고보니 전라도 사람이었음.
- * 친절하고 사교적이나 믿을 수 없었음.
- * 친구 사귀어 보니 뒤끝이 나빴음. 그는 전라도 사람이 똑똑해서 배척 당하는 것이라 함.
- * 표리부동이고 기회주의적이고 뒤끝 나쁨.
- * 전라도 사람 의리없으나, 생활능력은 배울만 함.
- * 정직치 못하고 이중성격이었음.
- * 이익있으면 간사하게 접근함.
- * 경기 또는 충청도라 하며 출신도를 숨김
- * 꼼꼼하고 뒤끝이 안 좋음.
- * 속생각 감추고 전체에 동조함. 실리적 친분관계 맺음.
- * 친절 뒤에 무엇이 있는가 연상케함. 약삭 빠르고 배신 잘 함.

징이 불신이라는 앞서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전라도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상동형적 신념은 이들과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상호작용의 결과는 다시 상동형적 신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전라도 응답자의 직접경험 전라도 응답자가 보고한 12개의 직접경험 중에는 여행이 6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군대의 4개였고, 나머지 2개는 기타로 분류됐다(표 7).

먼저 여행을 통한 경험은 주로 대인 상호작용이 아닌 대물 경험이 주를 이룬다. 즉 6개 중 4개가 두 지역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대한 지적이었으며 나머지 둘은 물가가 비싸고 인심나빴다는 내용이었다. 군대에서의 경험 4개는 모두 중립적이라 볼 수 있으며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기타의 2개 역시 부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12개 중 2개의 여행경험만이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판단되어 경상도 응답자의 반응경향과는 큰 거리가 있다.

논의 이상의 결과는 경상도 응답자의 직접경험은 편견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맥 락	내	용
군 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도에 근무했으나 차이 못 느꼈음. - 인간성이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음. - 경상도 동료로부터 “경상도는 경제·정치 우월하고, 전라도는 음악이 우월하다”는 말 들음. - 보이지 않는 갈등 있음. 경상·전라도 사람 모두 강한 개성이 있고 자기고장에 대한 향토애 있음. 	
여 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여행 가서보니, 걸으러만 봐도 경상도 경제 우월함을 느낌. - 수학여행 가서보니, 물가 비싸고 인심 고약했음. - 답사 가서보니, 경상도의 토지 값이 더 비쌌. - 수학여행 가서보니, 여관 주인 불친절, 음식값 비싸고 입에 안맞음. 전라도인 차별하는 것 같음. - 고속버스 타고 보니 경상도의 공업 현저히 발달함. - 경상도의 공장, 고속도로, 건물 보니 이질감 생김.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도가 전라도보다 더 사교적이었음. - 4년정도 살았지만 차이 못 느낌. 	

강화시켰고, 전라도 응답자의 경우에는 뚜렷한 효과가 없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집단간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가 제안되었으나 그중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동시에 최선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집단간의 접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즉 집단간의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상동형적 신념이 부정되는(disconfirm) 경험을 통해서 편견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를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이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처럼 편견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기존의 편견을 확인시키고 강화하는 기회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Amir, 1969, 1976).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접촉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Allport, 1954; Ashmore, 1970; Cook, 1969, 1978, 1984; Pettigrew, 1975, 1979; Rose, 1981; Williams, 1947, 1977)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효과적인 접촉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상적인 접촉이 아닌 긴밀하며 지속적인 접촉이어야 하며, 둘째, 두 집단이 협동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상황에서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접촉결과가 성공적이어야 하며, 넷째, 접촉은 동등한 지위에서 각 집단이 동일한 수인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Brewer & Miller(1984), Stephan(1985) 참조).

본 연구결과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군대에서의 접촉인데 이는 다른 상황에서 접촉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일반적인 군대

에서의 조건은 효율적인 편견감소조건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실제로 미국 군대내에서의 흑백통합이 편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Roberts, 1953; Stillman, 1969)은 모두 군대상황에서의 접촉이 편견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보고했다. 또한 출신지역이 다른 동족군대(이스라엘)에 관한 Amir, Bigman & Rivner (1973)의 연구에서도 일정조건만 충족되면 편견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군대내에서의 접촉조건을 좀 더 체계적으로 조작한다면 한국군대도 국방이라는 일차적 기능 이외에 지역민간의 편견감소라는 중요한 기능을 동시에 훌륭히 수행해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구체적인 방법은 Landis, Hope & Day (1984) 참조).

2. 간접경험

개관 우리가 간접경험을 하게 되는 경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만을 분석했다. 따라서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것은 제외시키고 ‘부모님이… 말했다’, ‘…라는 말이 있다’,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등의 것만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언급되는 사회상동형들은 어떤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게 해준다.

내용분석 결과 경상도 응답자 중 41명(25.9%), 전라도 응답자 중 34명(26.0%)에게서 분석대상이 될 진술문이 발견되어 보고량이라는 측면에서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 진술의 내용은 대체로 개인적 특성, 사회현상, 기타의 3개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이 범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 특성 간접경험 중 개인적 특성에 관한 진술의 내용 및 진술의 수는 <표 8>과 같다. 경상도 응답자 중 22명이 34개의 특성(총 진술수는 42)을 나타냈으며 그중 내집단에 관한 것은 6개(진술수 7회)이고 외집단에 관한 것은 28개(진술수 35회)이다. 반면 전라도 응답자는 14명이 21개의 특성(진술수는 22회)을 나타냈으며 이중 내집단에 관한 것은 16개(17회)이고 외집단에 관한 것은 6개(6회)이다. 이는 개인적 특성에 대하여 경상도 응답자가 많이 언급하였으며, 언급대상은 응답자 집단에 관계없이 전라도 사람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간접경험한 각 지역민의 개인적 특성을 응답자 집단별로 보면 경상도 응답자가 나타낸 경상도 사람의 특성은 내면적으로는 의리있고 인정있다는 정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외현적으로는 말이 시비조여 사치하고 유행을 따르다는 부정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이들이 간접경험한 전라도 사람은 전체적으로 극히 부정적인 바, 그 구체적 내용은 앞서 언급된 상동형과 상당히

경상도 응답자	전라도 응답자
경상도 사람은 의리있다.(2) * 인정있다. 합심하여 일 처리한다. 말이 시비조다. 사치한다. 유행을 따른다.	경상도 사람은 인심이 후하다. 단결력이 강하다. 주체성이 강하다. 말투고치기 힘들다. 억척스럽다.
전라도 사람은 뒤끝이 나쁘다.(4) 속이길 잘한다.(2) 교활하다. 사기친다. 처음엔 상냥하다, 뒤에는 실리적이다. 파렴치하다. 신용할 수 없다. 변심을 잘한다. 껌껌하다.(3) 이기적이다. 인정이 없다. 음식솜씨 좋다.(2) 검소하다. 생활력 강하다. 여자 살림 잘한다. 편견을 갖고 있다. 호전적이다. 비난을 잘한다. 사교적이다. 초면에 밝고 싹싹하다. 융통성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 고집세다. 너그럽지 못하다. 협동적이다. 단결력이 강하다. 세심하다. 야만인 같다.	전라도 사람은 속이길 잘한다.(2) 변절을 잘한다. 요령을 피운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싸움을 잘한다. 화를 잘 낸다. 도박성이 있다. 돈 씹셈이 짜다. 한이 없다. 주체성이 약하다. 단결력이 약하다. 환경에 동화 잘 된다. 개인적 자질 우수하다. 낙천적이다. 노는 것을 좋아한다. 억척스럽다.

* 괄호 안의 수치는 출현빈도이며, 명시되지 않은 것은 모두 1회임.

일치한다. 즉 전라도 사람은 일차적으로 사회적인 불신의 대상이며(뒤끝 나쁨, 속임, 교활, 신용할 수 없음 등), 인색하고 이기적이며, 내집단(즉 경상도)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편견갖고 있음, 호전적임, 비난잘함)으로 기술되었다. 이

상의 결과는 경상도 지역에서 전라도 사람에 대한 상동형적 신념의 표현이 전라도 지역보다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도 극히 오의적임을 추론 가능하게 해준다.

전라도 응답자의 경상도 사람에 대한 간접경험 내용은 경상도 응답자의 그것에 비해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반면 전라도 사람에 대한 것은 경상도 응답자의 반응과 유사하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경상도 사람에 대한 간접경험은 '억척스럽다'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이라고 보기 힘든 동시에 전라도 사람에 대한 간접경험은 특성 수나 빈도에서는 적지만 '속이길 잘한다'를 포함해 인색하고 공격적이라는 면에서 일치한다. 이 결과는 전라도 응답자들이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언급이 집단내에서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사회현상 사회적 현상의 간접경험으로 분류가능한 것은 경상도 응답자 14명

〈표 9〉 경상도 응답자의 간접경험(사회현상)

맥 락	내 용
거 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도 사람 경상도에서 살 수 있으나 경상도 사람 전라도에서 살지 못함. (2) * - 경상도 사람 전라도에서 살 수 있으나 전라도 사람 경상도에서 살지 못함. - 서울에 전라도 사람 80 %. - 경상도에 전라도 사람 상점 없음.
군 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도 사람 전라도 고참 만나면 곤욕 치름. 경상도 고참은 안 그럼. -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을 무차별 난타함. - 상호갈등이 심함. -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 서로 감정이 다름.
일반적 갈등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도와 전라도는 견원지간임. - 서로 정치적 갈등 있음. - 광주사태 때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 학살했다는 이야기 있다.(2) - 박대통령 때 전라도 사람 배격했다. - 정계 대부분 경상도라서 둘 간 사이 나쁨. -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 멸시함. (2)
경제 행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도 관광지 경상도 사람으로 붐비나 경상도 관광지는 안 그럼. - 경상도 사람 해태제품 사지만 전라도 사람 롯데제품 안삼. - 전라도 사람 경상도에 관광와서 물건 안삼.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도에 인재 많음.

* 괄호안의 수치는 출현빈도임. 나머지는 모두 1 회임.

의 21개 진술(표 9), 전라도 응답자 22명의 25개 진술(표 10)로 나타나 다른 경우와는 달리 전라도 응답자에게서 많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회현상에 대한 간접경험의 진술은 특성기술개념을 사용하는 개인적 특성처럼 단순한 내용이 아니어서 가능한한 줄이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

경상도 응답자가 간접경험한 사회현상(표 9)은 거주·군대·경제행동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 및 맥락에 관한 것과 양도간의 갈등에 대한 일반적 기술, 기타로 나뉘어질 수 있다. 먼저 거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양도 사람들이 거주문제 서로 차별한다는 진술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군대에서는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을 차별한다는 진술과 상호간에 알력과 갈등이 존재한다는 내용이며, 경제행동의 측면에서는 전라도 사람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내용이다. 일반적 갈등 기술에서는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을 멸시(무시)한다는 내용과 일반적으로 사이가 좋지않다는 내용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거주·군대·경제행동·일반적 갈등 기술의 네 측면 모두에서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보다 더욱 차별적이거나 적대적이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최소한 상호간에 비슷한 정도의 적대감 및 갈등이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전라도 응답자의 사회현상에 대한 간접경험(표 10)은 경상도 응답자

〈표 10〉 전라도 응답자의 간접경험(사회현상)

정치적 차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도 사람 고려때부터 소외 당함. - 정권 경상도가 좌우해 전라도 사람 유능해도 등용 안됨. - 경상도는 권력이 많고 전라도는 정치적으로 소외 당함. - 전라도 사람 관리로 등용하기 꺼림. - 전라도 사람은 일정한 수준 넘지 못함. - 경상도-전라도 간에 정치적 이견 있음.
경제적 차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도 사람 전라도 상품 안삼.(2)* - 지도자 경상도에 많아 경상도에 산업시설 집중됨. -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 채용 안함.(2) - 서울서 전라도 사람 취직 안됨.
사회적 차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을 불신함.(2) -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을 천시함. - 서울서 전라도 사람 대접 못 받음.(2)
경제적 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도 부유하게 삼.(2) - 차안에서 보아도 차이 남. - 전라도는 농업, 경상도는 공업으로 경상도에 부의 축적이 이루어짐.
일반적 갈등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도와 전라도간에는 옛부터 견원지간임.(2) - 경상도와 전라도간에는 사이 안 좋다.(2)

* 괄호안의 수치는 출현빈도이며, 나머지는 모두 1회임.

와 판이하다. 진술내용은 정치·경제·사회적인 차별 및 경제력의 차이, 일반적인 갈등 기술의 5개 유목으로 분류 가능한 바 정치적 차별에서는 전라도 사람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적 차별에서는 한정된 고용기회 및 경상도 사람의 지역중심적인 경제활동에 그 내용이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력의 측면에서도 경상도가 더 부유하다고 이야기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전라도 사람에 대한 불신과 냉대가 주된 간접경험이여, 일반적인 갈등 기술에서는 양도간의 감정적 대립이 주된 내용이며 동시에 그 뿌리가 깊다는 내용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전라도 응답자들은 전라도 사람이 정치·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경상도 사람이 주는 불이익적인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그 근원은 뿌리깊은 상호간의 적대감 또는 경상도 사람의 불신에 있다고 양도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들어왔음을 시사한다. 흥미있는 것은 간접경험 중 서울을 언급한 것이 3개 있다는 점이다. 수집된 자료에만 근거해서는 이러한 차별행위의 주체는 알 수 없고 단지 장소만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행위주체가 어느 지역의 사람이건간에 전라도 응답자의 서울지역, 나아가 서울사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기타 기타로 분류된 경상도 응답자의 간접경험은 대부분이 전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권고 및 충고라고 할 수 있다(표 11). 이 권고 및 충고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전라도 사람은 정치적으로 계속 소외시켜야 하며, 뒤끝이 나쁘니 깊이 사귀어서는 안 되고, 경상도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이니 전라도에서는 신분노출이 안되도록 조심해야 하며, 혼인을 통해서 인척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이에 해당되는 전라도 응답자의 간접경험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다.

〈표 11〉 두 집단의 간접경험(기타)

경상도 응답자

- 전라도 사람이 집권하면 경상도 핍박 받을테니 정권 주지 말아야.
- 전라도 사람 친구로 하지 말 것.
- 전라도 사람에게서는 딸을 주지 말 것.
- 전라도 사람 하는 일은 모두 마음에 안든다.
- 여자는 전라도 여자를 구할 것.

전라도 응답자

- 전라도 문화는 유배지 문화로 반역적 냄새가 난다.
- 전라도·경상도 이야기 많이 들음.
- 왕건 혼요십조에 전라도 사람 동용 말 것.

논의 지금까지 다루어진 간접경험은 응답자들이 언급한 동기가 무엇이든 간

에 그 사회에서 흔히 운위되는 지역간의 차이에 대한 통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가정은 앞의 결과를 종합할 때 경상도 지역에서는 ‘전라도 사람은 극히 오의적이며 부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며, 이들은 사회적으로 경상도 사람에 대해 차별적이므로, 가능한 한 이들과의 사회적 접촉은 회피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통념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반면 전라도 지역에서는 ‘전라도 사람에 대한 평판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으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통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집된 자료로써는 평판이 왜 좋지 않으며, 왜 차별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가 실행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편견을 갖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사회문화적 학습, 즉 간접경험을 통한 습득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학자는 없다. 즉 사람들이 갖게 되는 편견은 부모, 교사, 또래 등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표현한 집단적대감(group antagonism)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 수용된 감정을 표현하면 사회적 보상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점차로 강화되는 것이다. 이 견해를 지지해 주는 증거는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경상도 응답자 중 11명, 전라도 응답자 중 1명이 직접 경험 등의 구체적 이유없이 어른들을 통해 편견을 갖게 되었다고 자발적으로 보고하였다. 경상도 응답자 중 한 여학생은 대략 ‘전라도 사람은 반감과 거부감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과격하고 반항적이며, 처음에는 상냥하나 실리적이다’고 요약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한 다음 마지막 ‘기타 특기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설문지를 대하면서 나는 섭썩 놀랐다. 전라도인이라 하면 무조건 먼저 반발이 생기는 하는 데 그 이유를 들려면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 없다. 즉 나 개인은 어른들의 분위기, 주위의 분위기에 맡겨 전라도를 꺼려하지 않았나 싶다. 그렇더라도 이상하게 전라도인에게는 막을치고 싶다.”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ethnic slur)은 편견의 단순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편견의 전파자(carrier)이다(Greenberg & Pyszczynski, 1985). 이는 가정·학교·놀이터·각종 대중매체 어디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실행에 옮기기도 힘들고, 그 효과가 일정하지도, 극적이지도, 신속하지도 못하지만(Freedman 등, 1981; Katz, 1976), 편견을 근절시키는 최선의 방책은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 편견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집단간의 관용(tolerance)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데 이견을 제시하는 학자는 없다.

綜合的 考察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여러 지역 중 일반적으로 가장 대립적이고 갈등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영남과 호남인이 자신과 상대방을 지각하는 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었다. 이를 연구문제로 택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각상의 차이 자체가 편견적 태도의 중요한 요소로 관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집단간의 상호작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분석결과는 두 집단간에 현격한 지각상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두 집단간의 관계의 현황이 어떠한가를 추론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정보도 있었다. 물론 본 연구결과를 영남인이나 호남인 모두에게, 아니면 양 지역 대학생들 모두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하여는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기존의 이론 및 중요한 연구결과들과 상당히 잘 부합된다.

본 연구의 발견사항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도 사람들의 전라도 사람에 대한 태도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한결 부정적이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로부터 얻어낸 상동형들과 이들이 보고한 간접경험은 응답자들의 태도는 물론 그 지역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추론 가능하게 해준다. 먼저 경상도 응답자들이 나타낸 상동형들은 이들이 전라도 사람을 '믿을 수 없고, 극히 이기적이며, 단결력이 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라도 응답자의 경상도 사람에 대한 반응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한 간접경험, 즉 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이와 거의 차이가 없다. 이 결과들은 전라도 사람이 매우 편견적이고 적대적이라는 일반적 평가(연구자가 아는 한)와 상치되는 것이다. 즉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에 대해 훨씬 더 강한 편견적 태도와 적대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라도 사람은 그 자신을 경상도 사람보다 더 높히 평가하지 않는다: 전라도 사람의 내상동형은 그리 호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동시에 경상도 사람에 대한 상동형보다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들이 간접경험 내용 중에서 보고한 개인적 특성들은 극히 부정적이며 경상도 응답자의 그것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전라도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언급이 이들 사이에 흔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위 결과는 상식적으로는 예상하기 힘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평가는 상호적일 것으로 기대되며, 상대방의 부정적 평가는 집단내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고양토록 동기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런데 전라도 응답자의 반응은 외집단의 비판에 대하여 수용적이고, 내집단을 비하시키는 듯한 경향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소수집단(minority)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왔다. 미국의 흑인 아동의 정체감에 대한 Clark & Clark (1946)의 연구 이래 말레이시아(Hewstone 등, 1985), 뉴질랜드(Vaughan, 1964), 남아연방(Gregor & Mepheyson, 1966), 영국(Milner, 1973) 등에서 이러한 경향은 거듭 확인되어 왔다. Tajfel (1982)은 오랜 세월동안 사회피라미트의 밑바탕에 있어온 사람들이 자기비하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하며, Klineberg & Zavalloni (1969)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수집단(majority)의 부정적 평가는 소수집단의 자존심 수준을 낮추는 동시에, 다른 집단 또는 다수 집단에 자신을 동일시하게 하거나, 집단내 비교를 통해 자신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Hewstone 등(1985)은 이러한 반응이 내집단의 이익보호에 최선책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설명들을 경상도 사람이 더욱 강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앞의 결론과 동시에 고려할 때 전라도 사람들은 외부집단의 부정적 평가와 이로부터 비롯되는 자기비하로 인하여 집단정체감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세째, 두 집단은 서로 위협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두 집단이 부적인 상호 의존상황(negative interdependence)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집단의 속성은 단결력이다. 따라서 두 집단간의 차이를 기술하게 했을 때 단결력을 많이 언급한다는 것은 두 집단간의 관계가 경쟁적 또는 위협적임을 암시한다. 특히 두 집단이 모두 내집단을 단결력이 약하고, 외집단은 단결력이 강하다고 보고를 했다면 이 두 집단은 서로를 위협적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집단이 지각하는 위협의 요소는 서로 다른 것 같다. 간접경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도 응답자가 보고한 것은 주로 전라도 사람의 부정적인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인 접촉에서의 갈등 및 경쟁에 관해서이다. 반면 전라도 응답자는 정치·경제·사회에서의 차별을 주로 언급했다. 이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이들로 인해 개인적 이익이 침해받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임을 암시한다. 반면 전라도 사람이 지각하는 위협은 개별적인 경상도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경상도 사람이 주도해 온 사회구조적인 차별이다. 즉 한 개인의 불이익보다도 집단전체가 받는 불이익 때문에 경상도를 위협적으로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라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불신을 기초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거부(김진국, 1984 b)를 경상도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집단전체로는 사회구조적인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때로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항거하거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라도 응답자들이 ‘정의감이 강하다’, ‘반항적이다’를 내상동형으로 보고한 것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반면 역사적 사건 및 인물 등의 분석에서 전라도 응답자들의 자료로부터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광주사태’, ‘여순반란’, ‘동학란’ 등이 경상도 응답자 반응 중 적지않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을 체제도전적인 위협세력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네째, 두 집단이 지각하는 갈등의 원인이 다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집단이 서로 갈등적이고, 적대적이고, 위협적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두 집단이 지각하는 갈등의 원인은 큰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이 부정적인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각하는 반면 전라도 사람들은 사회구조적인 차별 때문으로 보는 것 같다. Chesler(1976)는 편견의 원인 및 근원에 대한 여러 이론을 구분하는 차원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피해자-체제(victim-system)’ 차원을 제시하였다. 이 차원의 ‘피해자’ 쪽 끝은 편견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특성(예를들면, 성격, 태도, 신념, 문화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체제’ 쪽 끝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예를들면, 권력관계, 자원분배, 제도적 구조 및 과정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상도 사람은 ‘피해자’ 쪽의 극단에 서서, 전라도 사람은 ‘체제’ 편향의 극단에 서서 두 집단간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지해 주는 결과는 여럿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간접경험, 역사적 배경과 내-외상동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간접경험에서 경상도 응답자는 전라도 사람의 부정적인 개인적 특성을 많이 보고한 반면, 전라도 응답자는 차별적인 사회현상을 많이 언급했다. 이는 원인지각상에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역사적 배경에서 전라도 응답자들이 언급한 시기 중 약 반수가 고려시대 또는 그 이전인 반면 경상도 응답자는 1/4 이상이 1960년 이후의 시기를 언급했다. 즉 전라도 응답자들은 영·호남간의 차이가 먼 과거로부터 있어 온 구조적 차별 때문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경상도 응답자들은 최근의 사건을 많이 언급하였고 또 다양하고 극히 오의적인 외상동형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현재의 전라도 사람들의 행동 및 특성이 두 집단간의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집단간 상호작용의 경험은 기존의 편견적 태도를 확인해 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향이 있다: 집단간의 상호작용은 집단간 편견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의 많은 연구들은 몇몇 조건이 충족

되어질 때에만 감소함을 밝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상도 응답자의 직접경험은 거의 전부가 상동형적 신념을 확인시켜 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음을 보여 준다. 반면 전라도 응답자의 직접경험은 부정적 결과를 낳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었다. 이는 경상도 응답자들의 편견적 태도가 훨씬 강함을 고려할 때 상호작용의 결과는 어떤 태도를 갖고 상호작용에 임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목할 만한 결과 중의 하나는 군대에서의 상호작용이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떤 상호작용 맥락보다도 군대에서의 직접경험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대라는 상황은 편견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상호작용 조건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다(Landis 등, 1984). 이는 군대에서의 환경 및 조건을 적절히 통제하면 편견감소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호남 대학생간의 편견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덜 편견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이보다 더 심각할 상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편견이 그러하듯이 지역적 편견 역시 건전한 사회발전과 통합을 저해하는 역기능적인 기능을 따름이며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할 사회병리의 하나이다. 그러나 편견의 해소나 감소는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며, 효율적인 해소책은 하루 아침에 찾아지지 않는다. 이는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 몇 년의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종적 편견의 감소에 가장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정치가, 행정가, 학자, 사회운동가, 종교인들이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노력들은 상당한 결실을 맺었으나 아직도 진정한 인종통합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역적 편견과 인종적 편견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장래는 한층 낙관적이라 할 수 있다. 지역적 편견이 고질적인 사회병리현상의 하나로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는 공통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전반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면 편견해소는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金鎮國(1984A). 地域民間의 偏見의 態度 研究. 全南大學校 學生生活研究, 16, 103-130.
- 金鎮國(1984B). 개인적이고 양적인 상동형 측정방법. 全南大學校 論文集, 29, 77-96.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ss. : Addison-Wesley.
- Amir, Y. (1969). Contact hypothesis in ethnic rel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71, 319-342.
- Amir, Y. (1976). The role of intergroup contact in change of prejudice and ethnic relations. In P. A. Katz(Ed.), *Towards the elimination of racism* (pp. 245-308). New York : Pergamon Press.
- Amir, Y., Bizman, A., & Rivner, M. (1973). Effects of interethnic contact on friendship choices in the militar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 361-373.
- Ashmore, R. D. (1970). Prejudice : Causes and cures. In B. E. Collins(Ed.), *Social psychology*. Reading, Mass. : Addison-Wesley.
- Ashmore, R. D. (1981). Sex stereotypes and implicit personality theory. In D. L. Hamilton(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Hillsdale, NJ : Erlbaum.
- Ashmore, R. D., & Del Boca, F. K. (1976). Psychologic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intergroup conflict. In P.A. Katz(Ed.), *Towards the elimination of racism* (pp. 73-124). New York : Pergamon, 73-124.
- Brewer, M. 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 307-324.
- Brewer, M. B., & Campbell, D.T. (1976). *Ethnocentrism and intergroup attitudes : East African evidence*. New York : Halsted.
- Brewer, M.B., & Miller, N. (1984). Beyond the contact hypothesis : Theoretical perspectives on desegregation. In N. Miller, & M.B. Brewer(Eds.), *Groups in contact* (pp. 281-302). Orland, Florida : Academic Press.
- Brigham, J. C. (1971). Ethnic stereotypes. *Psychological Bulletin*, 76, 15-38.
- Chesler, M. (1976).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ies of racism. In P. A. Katz

- (Ed.), *Towards the elimination of racism* (pp. 21–72). New York : Pergamon Press.
- Clark, K. B., & Clark, M. P. (1947). Racial identification and preference in negro children. In T. M. Newcomb, & E. L. Hartley (Eds.),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pp. 169–178). New York : Holt.
- Cook, S. W. (1969). Motives in a conceptual analysis of attitude-related behavior. In W. J. Arnold, & D. Levine (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 Univ. of Nebraska Press.
- Cook, S.W. (1984). Cooperative interaction in multiethnic contexts. In N. Miller, & M.B. Brewer (Eds.), *Groups in contact* (pp. 155–185). Orlando, Florida : Academic Press.
- Deaux, K., & Lewis, L. L. (1984).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 Inter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and gender lab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91–1004.
- Fiske, S. T. (1982). Schema-triggered affect : Applications to social perception. In M. S. Clark & S. T. Fiske (Eds.), *Affect and cognition*. Hillsdale, NJ : Erlbaum.
- Greenberg, J., & Pyszczynski, T. (1985). The effect of an overheard ethnic slur on evaluations of the target : How to spread a social disea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1**, 61–72.
- Gregor, A. J., & McPherson, D. A. (1966). Racial preference and ego-identity among white and Bantu children in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3**, 217–53.
- Hamilton, D. L. (1981).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 Some thoughts on the cognitive approach. In D. L. 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pp. 333–353). Hillsdale, NJ : Erlbaum.
- Hamilton, D. L., Dugan, P. M., & Trolier, T. K. (1985). The formation of stereotypic beliefs : Further evidence for distinctiveness-based illusory cor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5–17.
- Harding, J., Proshansky, H, Kuther, B, & Chein, I (1969). Prejudice and ethnic relations. In G. Lindzey, & E.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nd ed.). Vol. V. Reading, Mass : Addison-Wesley.
- Hewstone, M., & Ward, C. (1985). Ethnocentrism and causal attribution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614–623.

- Holsti, R. (1969). Content analysis. In G. Lindzey, & E. Arosen(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2nd ed). Vol. II. Mass. : Addison–Wesley.
- Katz, P. A. (1976). The acquisition of racial attitude in children. In P. A. Katz (Ed.), *Towards the elimination of racism*(pp. 125–156). New York : Pergamon Press.
- Katz, D., & Braly, K. R. (1933). Racial stereotypes of one hundr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8**, 280–290.
- Kinder, D. R., & Sears, D. O. (1981). Prejudice and politics : Symbolic racism versus racial threats to the good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414–431.
- Klineberg, O., & Zavalloni, M. (1969). *Nationalism and Tribalism among African Students*, Paris, Mouton.
- Landis, D., Hope, R.O., & Day, H.R. (1984). Training for desegregation in the military. In N. Miller, & M.B. Brewer(Eds.), *Groups in contact*(pp. 257–278). Orland, Florida : Academic Press.
- Lippmann, W. (1922). *Public opinion*. New York : Harcourt, Brace.
- Milner, D. (1981). Racial prejudice. In J. C. Turner, H. Giles(Eds.), *Intergroup behaviour*(pp. 102–143). Oxford : Basil Blackwell.
- Milner, D. (1973). Racial identification and preference in black British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81–285.
- Pettigrew, T. F. (1975). Preface. In T. F. Pettigrew(Ed.),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 Harper & Row.
- Pettigrew, T. F. (1979). The ultimate attribution error : Extending Allport's cognitive analysis of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5**, 461–476.
- Roberts, H. W. (1953). The impact of military service upon the racial attitudes of Negro servicemen in World War II. *Social Problems*, **1**, 65–69.
- Rose, T. L. (1981). Cognitive and dyadic processes in intergroup contact. In D. L. Hamilton(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Hillsdale, NJ : Erlbaum.
- Snyder, M. (1981). On the self–perpetuating nature of social stereotypes. In D. L. Hamilton(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Hillsdale, NJ : Erlbaum.
- Stephan, W. G. (1985). Intergroup relations. In G. Lindzey, & E. Aronson

-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rd ed.). Vol. II. New York : Random House.
- Stillman, R. (1969). Negroes in the armed forces. *Phylon*, 30, 139–159.
- Tajfel, H. (1981). Social stereotypes and social groups. In J. C. Turner, & H. Giles (Eds.), *Intergroup behaviour* (pp. 144–167). Oxford : Basil Blackwell.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aylor, S. E., Fiske, S.T., Etcoff, N.L., & Ruderman A.J., (1978). Categorical and contextual bases of person memory an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778–793.
- Turner, J. C. (1981). The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behaviour. In J. C. Turner, & H. Giles (Eds.), *Intergroup behaviour* (pp. 66–101). Oxford : Basil Blackwell.
- Vaughan, G. M. (1964). Ethnic awareness in relation to minority group membership.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5, 119–130.
- Vinacke, W. E. (1949). Stereotyping among national–racial groups in Hawaii : A study in ethnocentrism.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261–291.
- Wilder, D. A. (1981). Perceiving persons as a group :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relations. In D.L. 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Hillsdale, NJ : Erlbaum.
- Williams, R. M., Jr. (1947). *The reduction of intergroup tensions : A survey of research on problems of ethnic, racial, and religious group relations*. New York :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Bulletin 57,
- Williams, R. M. (1977). *Mutual accommodation : Ethnic conflict and cooperation*. Minneapolis : Univ. of Minnesota Press.

ABSTRACT

Youngnam and Honam Students' Percep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Youngnam and Honam People

Kim, Jin-Kook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compared the perception of Youngnam and Honam students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rea people. One hundred thirty two students from a university in Honam area and 158 students from a university in Youngnam area were asked to write down anything came into mind concerning the differences between Youngnam and Honam people. The responses were content analyzed. Analyzed major content domains were response quantity, description style, historical backgrounds, ingroup and outgroup stereotypes, and direct/indirect contact experienc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samples on all of the content domains. The Honam sample gave more response than the Youngnam sample, however, the latter used more abstract and inconclusive expressions than the former. While reported historical backgrounds of Honam sample were mainly centered on the old times, those of Youngnam sample were on the recent time relatively. The ingroup and outgroup stereotypes of Honam sample were few in numbers and neutral in meanings. In a sharp contrast, the outgroup stereotypes of Youngnam sample were not only many but also extremely unfavorable. Experiencing direct interaction with the opposite group members seemed to produce undesirable effects; it seems to strengthen the stereotypic beliefs about the opposite group. This appeared to be more so with Youngnam sample. In explaining the differences, the Honam sample tended to attend to the discriminatory social structure in general; on the other hand, the Youngnam sample attended to the collective personality of Honam people. Overall, it seems that Youngnam sample have much more prejudiced attitudes toward Honam people, which is the opposite to the common belief that Honam people is much more prejudiced.